

CEO 동정

### 네팔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일행 공단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8월 22일 리데이시 트리파티(네팔 공공사업교통부장관) 일행을 만나 한국철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네팔 철도건설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CM협회 초청 간담회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8월 24일 CM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공단과 CM업체의 공동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해외신용등급 Aa3으로 한 단계 상승

- 국내 공기업 중 최고 수준...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지난 8월 27일 국내 1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공단의 해외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Aa3(안정적)'으로 한 단계 상승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 4월 철도공단의 해외신용등급 전망을 A1의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한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상황 조정된 것"이라며, "고속철도역사 등 실적 최적화, 시공방법 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과 국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익창출 등 부채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이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해외신용등급 상황 조정은 총 21개 등급 중 네 번째로 높은 순위이며, 이로 인해 공단은 연간 4조원 규모의 채권발행이 용이하게 되어 철도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권금리 인하에 따른 연 8억원의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공단의 재무건전성 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단은 해외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신용등급도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국가생산성대상 특별상 수상

- 환경·경제·사회적 책임 등 녹색생산성 부문 경영성과 인정 -



공단은 지난 5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2012년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녹색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인 녹색생산성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환경·경제·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친환경 철도를 건설하여 국민편의와 녹색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환경적 성과는 철도건설 설계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수행하여 온실가스·폐기물 배출 억제와 자재 재활용의 확대이다. 특히 연간 1758만kwh 전력생산으로 342만t의 유류와 1만tCO<sub>2</sub>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65개 역사에 태양광 설비를 추진하고 경춘선 묵현역, 경전선 진주역 등 신설역사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 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Barrier Free)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철도를 건설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경제적 성과는 전라선 복선전철화 등 5개 사업의 개통,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지역개발을 위한 원주~강릉간 사업 적기 착공 등 효율적 철도건설 추진을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제공이다. 또 경제적 설계와 시공으로 5142억원의 사업비 절감, 철도자산의 적극적 활용과 해외사업 다각화로 1149억원의 수익창출 등 누적 금융부채를 14조 6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감소시키고, 공단 출범이후 최초로 415억 원의 부채를 순수 상환한 점 등을 성과로 인정받았다.

사회적 성과는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 뉴스레터,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전제 사업현장에 확대·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했다. 또 중소기업의 철도건설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 정부의 공정사회추진 선도 노력 등으로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광재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효율적인 건설계획, 과잉 없는 경제설계, 무재해 안전시공, 재무건전성 확보, 창의혁신, 공생발전」 등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노력한 결과"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환경·경제·사회적 성과를 창출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글로벌 철도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 '대·중소기업 기술협력대상' 수상

- 선로소음 저감용 흡음판 개발 등 5개 과제 성공 공적 인정 -

공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수여하는 '2012년도 대·중소기업 기술협력대상'에서 단체부문 기술협력 우수 수요처 분야와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단체부문에서는 선로용 흡음판, 철도 전용방 광코어 직접 접촉을 통한 영상복합처리장치 개발 등 5개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09년부터 '11년까지 기술지도 및 자료제공 등의 기술지원과 함께 약 284억원의 제품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는 지원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개인부문에서는 구매조건부 사업으로 개발된 전철용 전자식 제어반이 선정되었으며, 기존 제품의 고장원인을 규명하여 제품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신뢰성 향상, 유지보수 및 점검효율이 용이해져 약 6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술지원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오병수 부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단은 철도건설산업 동반성장에도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특히 지난 7월 정부와 공동으로 20억원의 민·관 공동 R&D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철도건설기술 분야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외화 및 사업비 절감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등 성과공유제 확산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대·중소기업 기술협력대상 수상 포상금 350만원을 철로변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

- 특별점검팀 구성, 하도급대금 지급 등 불시점검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27개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원청사, 하도급업체 및 장비·자재공급업체 등에 대한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는 3개조의 특별점검팀을 건설본부와 합동으로 구성하여 지난 5일부터 26일(3주간)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철도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2건의 대금미지급 적발건수 중 약41%(9건)가 설·추석의 명절 전후에 적발된 점에 주목해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과 관련업체의 자금경색으로 대금지연 지급, 임금체불 등이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여부, 장비·자재공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와 불공정계약관행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계획이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추석선물 안주와 안방기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임금을 체불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원청사로부터 장비·자재공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하도급 등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후 처리 불응 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기획혁신본부 임영주 기자>



## 선진국형 설계예정가격 작성으로 사업비 절감

- 「철도분야 실적공사비 확대적용 추진로드맵」 마련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 3일 철도분야의 실거래가격을 기본으로 하는 「실적공사비 확대적용 추진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된 공종별 단가(Unit Price)로서 유사공사 예정가격산정에 적용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계획은 '14년까지 노반, 궤도, 건축, 전기분야 등에 대하여 총공종의 50%를 철도특화 공종 개발 및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종개발을 위한 제도정비(공종개발 지침 및 절차서 제정) ▲실적공사비 관리시스템 구축(EPMS-DB관리시스템) ▲정부 등록공종의 설계 적극 반영(전환) 등이다.

공단은 추진로드맵을 통해 철도공사 특성이 반영된 실적공사비를 발굴·적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노반/건축, 궤도분야 11%, 전기분야 7% 이상의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혁신본부 설계기준처 이해원 기자>

### ○ 추진로드맵

- 업무분장(조직구성) → 제도정비(제정 및 절차서 제정) → DB관리시스템 구축 → 철도특화공종개발/적용
- 2012년 완료 → '14년 공종 50%개발 → 철도적용가능 등록공종 '12년도 하반기 즉시적용